

보도시점 2026. 10. 12.(월) 11:00
< 10.13.(화) 조간 >

배포 2026. 10. 12.(월)

복잡한 의류·화장품 中 인증 공금증 푼다... 산업통상부, 상하이서 설명회 개최

- 中 관계당국, 시험·기준부터 사후관리·단속 절차까지 상세 안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12(월) 14:00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 외상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패션의류·화장품 등 대중(對中)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국가표준(國家標準, Guojia Biaozhun의 약칭): 중국 내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요건 등을 정한 기술표준으로, 제품 시험·인증 등의 기준으로 활용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34.4억불, 전년동기比 + 8.7%)이 4년 6개월 만에 반등하고 특히 그 중 패션 품목 수출(4.5억불, 전년동기比 + 33.4%)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 소비재 전반의 수출 확대 흐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다.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높은 의류·화장품 분야의 인증 기준과 시험·검사 제도, 현지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단속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화장품 표시·성분검사, 의류 섬유 혼용률·안전성 시험, 시장 단속 시 적용기준 등 수출·유통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애로와 공금증이 제기됐으며, 중국 당국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상하이 패션위크(10.8~12) 기간에 맞추어 개최하여 상하이를 찾은 많은 패션·뷰티 등 우리 소비재 기업과 바이어가 설명회장을 찾았으며, 중국 인증기관과의 교류 외에도 기업들 상호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부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우리 소비재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국 지방정부 및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수석전문관	원미경 (044-203-5696)
			주무관	김혜윤 (044-203-5698)



1. 개요

- (일시) 2026.10.12.(월) 14:00 ~ 17:00
- (장소) 래디슨 컬렉션 양쯔 상하이 호텔 3층 대연회장
- (주관) ^韓KOTRA / ^中외상투자협회
- (참석대상) 중국 진출(희망) 한국기업, 시험·인증기관 등 약 100명

2. 상세 일정(안) ※ 한-중 동시통역

시간		상세 내용	발표(참정)
14:00-14:30	30'	사전환담	
14:30-14:50	20'	개회 및 모두발언	사회: KOTRA
14:40-14:45	5'	개회사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
14:45-14:50	5'	축사	왕이양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1급 순시원(국장급)
14:50-15:20	30'	(세션1) 섬유·의류 GB	딩뤄야오 기술총괄책임 (유)상하이방직그룹검측표준
15:20-15:50	30'	(세션2) 화장품 GB	정룽 부소장 상하이시 약품검험연구원
15:50-16:50	60'	질의응답	
16:50-17:00	10'	폐회	